

| 생산기관 | 문화재형 문화재정책국 문화재교육과 | | |
|------|--------------------|------|-----|
| 생산년도 | 1996 | 보존기간 | 춘영구 |
| 관리번호 | DA1169217 | | |

1550085-9999999-1996-000011-001

준영구

세계기록유산

1996 - 2001





국가기록원 보존문서(원본,광디스크 네이크로필름) 원는으로부터 복사되었음을 증명함.

국가기록원장



二月4日·夏·

주 프랑스 대사관

비화 [FRW(FC)-

번 호 : 프랑스 24/70- F F 7 일시 : 99.04,02 수 신 : 장관(44.904.55) 기사 강간 사비간 발 신 : 주프랑스 대사

제 목: 例如傳給 新州 贵利

비밀내용 전송금지

보안 통 제

외신과

수신처 :

22112 美色水

총 2 매 (표지포함)

Pq: 2/2

-KurarHerald: National News

e apri//www.koresherald.co.kr/kh0401/m9401108.html

04-01-99 : France objects to UNESCO proposal for joint registration of Koreau assets

UNESCO has proposed to France that it jointly register "Chik-chi-shim-che-yo-jol," a commentary to ancient Korean Buddhist texts, on its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with Korea, an official of the UNESCO Korean National Commission confirmed yesterday. "Chik-chi-shim-che-yo-jol," known to be the world's oldest remaining metal printing type dating back to the 14th century, is currently kept at the French National Library in Paris. Originally in two volumes, only the second volume has been saved and was reportedly purchased by France for a price.

The official said that Korea made the suggestion in November through UNESCO headquarters, which then relayed it to France. The official said, however, the proposed joint registration, was unlikely to happen, as France has so far objected to it. According to the official, the French National Library authorities have made clear the suggestion was infeasible to them and informed UNESCO of their position. "We have also confirmed through the French Embassy here the French library indeed has no intention of accepting the proposal," he said.

Some Koreans also have raised objection to the idea, saying that such concessions would negatively affect future efforts to retrieve other cultural properties that have been taken out of the country. Korea plans to request the return of many artifacts bought by the French during ancient times in the upcoming Seoul-Paris talks.

Homepage

Korea Herald News

earch

Copyright 1999 Korea Herold. All rights reserved, Deviated by ISM Corporation

대

2] ㅂ]

> 보존 1 년 기간

보 差

일 시 990402 1800

프랑스 대사관

프랑스 24170 - D000465 번 Ì

장관(서구, 유엔사, 문협) 수 신

발 신 주프랑스대사

관리

번호

-322

: 세계기록유산 등재 문제 제 목

- 1. 불 외무부 아주국 Frederic LAPLANCHE 한국담당관은 금 4.2(금) 당관앞 연락을 통해 99.4.1자 Korea Herald지가 UNESCO 한국 위원회를 인용, 프랑스가 직지심체 요절(직지심경)을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로 등재하자는 UNESCO의 제안을 거부하였다는 기사를 별침 게제한 것과 관련하여, 동 직지심경의 세계기록 유산 등재에 대한 불 정부의 입장을 참고로 통보하여 왔는 바, 동 내용 아래 보고함.
- 가. 불 정부는 불 국립도서관측과 함께 직지심정을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하자는 유녜스코 한위의 제안을 검토중에 있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바 없음.
- 나. 불 정부는 프랑스 자체 생산 문화재에 대한 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직 내부 입장을 확정치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불 문화재는 없는 실정임.
- 다. 불 국립도서관측은 직지심경의 세계문화사적 가치를 잘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문제는 외규장각 문제가 타결된후,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임.
- 라. 불 외무부로서는 외규장각도서 문제가 한.불간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서구 유엔사 국기심 문협 차관보 차관 장관 청외교 *정보관리

원본 : 서구 인쇄처: 문협국

^건안준수 : 원본 수령부서 승인없이 복사금지

99.04.03 01:16 정보화지원담당관실 통제관 FR

Page: 1/2

011

376

현 시점에서 직지심경 문제가 양국간의 또 다른 문화재 관련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u>외규장</u>각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한국 측이 불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여 줄 것으로 기대함.

3. 당관이 유네스코 한국위(하 팀장)에 보도 배경을 별도 문의한 바, Korea Herald가 청주 지방신문의 보도 내용을 전재하는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요청해와 UNESCO 한국위는 그간의 진전 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었다고 함. 이와 관련 당관은 관련 내용을 UNESCO 한국위에 별도 설명, 향후 사실과 다른 보도가 게재 되지 않도록 우선 조치해 두었음을 보고함.(담당 : 일등서기관 박윤준)

첨부 : 상기 Korea Herald 보도 내용 1부(F-57).끝.

(대사 권인혁 - 국장)

예고 : 99.12.31.일반

인쇄처: 문협국

보안준수 : 원본 수령부서 승인없이 복사금지

Page: 2/2

1